



## ■ 제6차 아르헨티나 한국학 학술대회 참석 후기

박 완 수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30여 시간의 비행 끝에 2010년도 아르헨티나 한국학대회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의 휴양도시 바릴로체 (Bariloche) 인근의 비야라앙고스투라(Villa La Angostura)에 있는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UBA, Universidad Nacional de Buenos Aires) 수양관에 도착했다. 안데스 산맥 속에 들어앉아



국립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

있는 UBA 수양관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나우엘 우아피(Nauel Huapi)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조용하고 평온함으로 학자들의 모임 장소로는 최적지였다.

아르헨티나 한국학회(AAEC,

Asociación Argentina de Estudios Coreanos)와 국립 코마우에 대학(Universidad Nacional del Comahue)이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이 후원하는 제6차 아르헨티나 한국학대회(Sexto Congreso Nacional de Estudios Coreanos)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및 한국 등지에서 한국학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10월 28-29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의 역사, 경제, 문학, 문화, 예술, 사회, 교육, 국제관계 및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사회 등을 주제로 하여 모두 41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르헨티나 첫 한인 이민자를 기리며” (En homenaje a los primeros colonos coreanos en Argentina)라는 부제때문인지 한인 이민을 다룬 논문이 10편이나 되었다. 금년 학술대회는 지난 5년간 대도시에서 개최된 학회와는 달리 도시와 떨어진 외딴 곳에서 참가자들이 2박 3일간 합숙하며 진행되어 한국학 연구자들끼리 결속과 친목을 다지는 장이 되기도 했다. 대회장에서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에도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의 연구 주제와 관련 자료 획득 방법에 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보도 교환했다. 필자도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공보관으로 재직 시(2000년 8월~2005년 8월) 인연을 맺은 학자들과 그간의 회포도 풀고 학회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한국학 연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학자들의 공통 관심사였다. 학자들은 해를 거듭하면서 주제 발표 내용이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자신들이 원하는 연구 주제와 관련한 자료를 구독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토론했다. 또 스페인어로 된 자료는 아주 희귀하고 영문으로 된 것도 제한적이라는 얘기도 했다. 아울러 이러한 여건하에서 아르헨티나 한국학 연구 1세대인 자신들을 이어 나갈 소장 학자들(대학원생 포함)에게 한국학 연구

에 동참할 것을 권하는 일이 주저될 때가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했음인지 이번 대회를 주관한 AAEC 회장인 코마우에 대학 알시라 트리체리(Alcira Tricheri) 교수가 학술대회 말미에 예정에 없던 별도 세션을 마련해 학회 참가자들 간 연구 주제의 중복과 반복을 피하기 위해 연구 과제의 다양화와 관련 자료 구독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향후 학자들 간 빈번한 모임을 가질 것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광경을 지켜보며 아르헨티나 한국학의 장래가 걱정되기보다는 밝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당초 이번 학술대회에 주제 발표를 신청한 79명 모두가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300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곳에서 개최하다 보니 희망자 모두에게 교통비와 숙식비를 지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참가 자격 조건을 만들어 심사를 통해 그 절반만이 참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AAEC가 2004년 설립된 이후, 2005년 4월 국립 로사리오 대학(Universidad Nacional de Rosario)에서 제1차 한국학 학술대회가 개최된 이후, 2006년 국립 라플라타 대학(Univeridad Nacional de La Plata), 2007년 국립 투쿠만 대학(Universidad Nacional de Tucumán), 2008년 엘살바도르 대학(Universidad de El Salvador), 2009년 국립 코르도바 대학(Universidad Nacional de Córdoba) 등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학술대회가 열렸으며, 2011년엔 UBA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의 한국학 연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소재한 엘살바도르 대학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립 엘살바도르 대학의 설립자 중 한 분으로 아르헨티나의 동양학 선구자로서 아시아에 관심이 많았던 가톨릭 신부 이스마엘 킬레스(Ismael

Quiles) 교수가 1964년 이 대학교에 동양학대학을 설치하고 동양 문화 강의에서 한국문화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부터였다. 동양학의 한 부분으로 한국문화를 접하게 된 킬레스 신부는 1970년대 초 같은 대학에 유학 온 한국인 학생 부부를 도와주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한국인 이민자들과 접촉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학문적 관심 때문에 그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게 하고 자신의 한국연구 결과물을 저서로 펴내게 된다. 필자는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 공보관으로 두 차례 근무했는데, 첫 번째 근무를 위해 1987년 4월 부임하여 처음으로 치른 행사가 킬레스 신부의 책 출판기념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국의 얼—교육, 문화와 철학” (El Alma de Corea—Educación, Cultura y Filosofía)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아르헨티나 최초의 한국관련 저서다. 엘살바도르 대학에선 킬레스 신부의 뒤를 이어 릴리아나 가르시아 다리스(Liliana Garcia Daris) 교수가 한국학을 계승·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엘살바도르 대학에서 태동한 한국학 연구는 아르헨티나 유수의 국립대학으로 전파되었다. 1987년 코르도바 대학 역사학부의 하이메 실버트(Jaime Silbert) 교수가 한국학 연구를 시작한 후 현재 같은 대학에 한국학 연구 그룹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5년 UBA의 지노제르마니연구소(Instituto Gino Germani)의 카롤리나 메라(Carolina Mera) 교수가 한인 이민사회 연구 모임을 만들어 한국 연구를 시작한 이후 발전을 거듭한 끝에, 2005년 가을에 한국연구센터(Centro de Estudios Corea-Argentina)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라틴아메리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BA에서 한국연구센터 설치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한국연구센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연구소에 이

어 UBA에 설치된 세 번째 외국연구 기관이기 때문이다. 중남미 지역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UBA가 일본이나 중국 연구센터가 아닌 한국연구센터를 택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하겠다.

UBA에 이어 라플라타 대학, 로사리오 대학, 투쿠만 대학, 살타 가톨릭 대학, 코마우에 대학으로 한국학 연구가 번져 나갔다. 대서양 경제권 안에서 유럽만 쳐다보던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가 대서양 중심에서 태평양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이 1997년 경제위기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하여 주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등 날로 발전해 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한국연구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여러 대학에서 한국학 연구 세미나, 학회, 한국문화 소개 전시회 등이 산발적으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열렸다. 학자들끼리 서로 자신이 정통 한국학 학자(Corean logo)라며 신경전을 벌리며 파벌조성 조짐까지 보였다. 이에 한국 대사관이 중재에 나서 체계적·조직적·정기적 한국학 연구 단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르헨티나 한국학 계승 발전을 위해 한국 연구가 모두가 참여하는 한국학회 설립을 제안하게 되었다. 한국학계의 원로인 코르도바 대학의 하이메 실버트 교수가 중심이 되어 여러 차례의 회합 끝에 2004년 4월 아르헨티나한국학회가 창립되었으며 실버트 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학회 창립 이듬해인 2005년 4월 로사리오 대학에서 제1차 한국학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학의 질적인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어가 보급

되어야 한다. 2005년 대학 안에 한국연구센터를 설치한 UBA는 한국어과 설립 전초 단계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인문학 대학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초급, 중급, 고급 세 반에 80여 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다고 한다. UBA에 이어 2010년 6월 라플라타 대학이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으며, 코르도바 대학도 한국어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소재한 한국문화원(Centro Cultural de Corea)이 운영하는 일반인 대상 한국어 강좌에 100여 명이나 등록하여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니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어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도 될 것 같다.

필자는 한국·아르헨티나협회(Sociedad Argentina de Corea)를 대표해서 제6차 한국학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도전 속에서 계속 유지 발전해 온 아르헨티나 한국학이 장차 라틴 아메리카 한국학 연구의 중심이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1세대 학자들을 이어 갈 대학원생을 포함한 신진 소장 학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술대회 참석 후 귀국길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들러 UBA 한국학센터의 도움을 받아 UBA와 라플라타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네 명의 학생을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간담회를 가지고 그들과 한국학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르헨티나 한국학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한국 연구를 위한 자료와 서적 구독의 어려움 등 열악한 여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고민도 전해 들었다. 한국학을 선택한 것이 과연 자신들의 학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는 학생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한국학의 차세대의 기둥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교

육열에서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아르헨티나에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학 연구에 정진할 것임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UBA, 라플라타 대학, 로사리오 대학, 코르도바 대학에 자신들을 포함해 총 11명의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한국학의 2세대 주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한국학 연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달라고 했다. 그들이 있는 한 아르헨티나 한국학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밝아 오리라.

지난 20여 년간 아르헨티나 한국학 확산을 위해 헌신하고 한국학회 창립에 구심적인 역할을 해 온 코로도바 대학의 하이메 실버트 교수가 지난 9월 지병으로 한국관련 4권의 저서를 남기고 별세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한국학 발전에의 공로를 기리며 아르헨티나 한국학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본다.

---

박완수 - 사단법인 한국·아르헨티나협회 부회장

---